



News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을 실현하기 위한 현대건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현대건설은 3월 3일부터 양일간 제주도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협력사 대표 155명과 정수현 사장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H 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를 열었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협력사와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확인한 값진 시간이었다.

▶ 관련기사 5면

Hyundai E&C is gearing up for carrying out the vision of Hyundai Motor Group, "Together for a better future." Korea's primary builder held the H Leaders regular general meeting and management seminar in Haevichi Hotel and Resort Jeju, Jeju Island, for two days from March 3. The gathering was attended by about 50 executives including Hyundai E&C CEO Jung Soo-hyun and 155 CEOs of its subcontractors. The meeting, which marks its 6th anniversary this year, gave Hyundai E&C a chance to confirm the close cooperation with its excellent subcontractors. ▶ Continued on page 5



Together for a better future

H 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

현대건설, 제로에너지빌딩의 청사진을 제시하다

핵심기술 'BEMS' 국내최초 설치확인 1등급 획득

현대건설이 제로에너지빌딩 시대의 핵심 솔루션인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임을 입증했다. 현대건설은 현대오토에버와 공동 개발한 'Smart BEMS'를 경기도 용인시 마북동 소재의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



터(Green Smart Innovation Center)에 적용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설치 확인 1등급'을 획득했다.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의 Smart BEMS에는 고도화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물 에너지 소비·생산 목표 관리 기술 ▶인공지능 기반 공조복합제어 기술 ▶MEG(Micro Energy Grid)* 최적화된 기술 등 최고 수준의 에너지 예측·제어 기술이 탑재됐다.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관계자는 "다년간 연구를 통해 개발한 'Smart BEMS'는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환경 구현은 물론 효과적인 건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됐다"며 "실제로 지능형 공조 제어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에너지저장 시스템을 활용해 각각 20%, 50% 이상의

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2016년 Smart BEMS를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국내 최초의 고품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인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1차'에 설계 적용한데 이어 향후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연면적 1만㎡ 이상 공공건축물의 BEMS 설치 의무화에 발맞춰 시행되고 있는 BEMS 설치확인 제도는 민간 건물로까지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MEG(Micro Energy Grid)= 신재생 발전원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포함하는 건물 내 소규모 에너지망

Hyundai E&C offers a blueprint for zero-energy buildings

Hyundai E&C has reaffirmed its position as a leading player in the development of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which is considered a core solution in the construction of zero-energy buildings. "Smart BEMS" applied to the Green Smart Innovation Center, located in Mabuk-dong, Yongin-si, Gyeonggi-do, acquired the top level of the BEMS certification from Korea Energy Agency. Hyundai E&C's Smart BEMS was developed jointly by Hyundai AutoEver. The newly applied Smart BEMS features top-notch technologies for energy prediction and control with the purpose of the management of the consumption and production goals for building energy, the

AI-based integrated control and the optimized operation of MEG (micro energy grid)*. Korea's primary builder introduced the Smart BEMS to the designing of Hillstate Lake Songdo I in 2016, which was the country's first high-rise zero-energy building project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builder is currently planning to use the new technology for a wide range of projects to come.

* MicroEnergyGrid(MEG) refers to a small-scale energy network in a building involving renewable sources of power generation and energy storage systems (ESS).

아모레퍼시픽 사옥 신축공사상량식 열려

국내 최대 단일 업무시설...올 8월 준공 예정

국내 최대의 단일 업무시설인 '아모레퍼시픽 사옥 신축공사 현장'이 지난 3월 2일 상량식을 갖고 2년6개월간의 주요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현장 내에서 열린 이날 상량식에는 우리 회사 김정철 건축사업본부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 설계 디자이너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의 골조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내빈 소개 ▶홍보 영상물 상영 ▶상량 퍼포먼스 ▶현장 투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을 방문한 김정철 건축사업본부장은 "난공사임에도 직원들이 한마음



지난 2일 열린 상량식에 우리 회사 김정철 건축사업본부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참석했다.

으로 애써 준 덕분에 무사히 상량식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우리가 짓는 아모레퍼시픽 현장이 화장품 전문

기업이라는 발주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달

라"고 당부했다.

2014년 7월 수주한 현장은 연면적 18만9095㎡, 지하 7층~지상 22층, 계약금액 5095억원(현재)의 국내 최대 단일 업무시설이다. 특히 디그 자 모양의 업무 공간은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하부, 상부, 중간마다 6~7층 높이의 높은 개구부와 중정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 회사는 내부 기둥과 코어 벽체의 노출 콘크리트, 열린 구조의 메가 트러스·매단 구조물(Hanging Floor), 독창적인 외장 입면 등을 정밀하게 구현하기 위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했다. 현재 현장의 공정률은 63%로, 올 8월 준공을 앞두고 막판 스피트를 올리고 있다.

그림사 소식

현대자동차그룹, 전략기술연구소 출범

현대자동차그룹은 미래차 융·복합 분야의 미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전략기술연구소(이하 전략기술연구소)'를 출범한다.



'전략기술연구소'는 산업 대변혁 시대의 도래를 맞아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신소재, 에너지, 로봇틱스(Robotics), 공유경제 등 미래 혁신 분야를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변혁이 일어나면서 기업들이 과감한 도전에 나서고 있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은 차세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고 소비자에게 독창적인 제품과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ping out ceremony held for AmorePacific Headquarters

Our company held the topping out ceremony for the headquarters of AmorePacific on March 2 to finish up the construction of the major frame structure of Korea's largest single business facility project.

The ceremony, held at the con-

struction site located in Hangang-ro, Yongsan-gu, Seoul, was attended by about 100 officials including Head of Division of Building Works Kim Jung-chul, AmorePacific CEO Suh Kyung-bae and architect David Chipperfield. The event designed to

mark the completion of the frame structure began with the introduction of guests, followed by showing a promotional video, placing the last beam atop the building structure and touring the construction site.

Our company was awarded the

project in July 2014 to build the 189,095 square-meter building of 22 floors above ground and 7 basement levels. As of now, 63 percent of the construction has been completed. Our company is accelerating its efforts to complete the project in coming August.

2017 현대건설 기술대전 응모작 모집

우리 회사가 5월 15일까지 중소기업, 협력업체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7 현대건설 기술대전' 응모작을 모집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현대건설 기술대전'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인재·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미래 건설기술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응모 분야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건설 융·복합 기술 ▶인프라·건축·플랜트·에너지환경·재료 등 건설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기술 부문이다.

국내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대학부문),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현대건설 협력업체(기업부문) 등이 응모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현대건설과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등 동남아 지역에서의 시장 진출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싱가포르 대학(원)생의 공모도 받을 계획이다.



십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권 획득

우리 회사가 지난달 26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 십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대에 위치한 십정5구역은 대지면적 약 9만9989㎡에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23개 동(2350가구)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우리 회사를 포함해 두산건설·쌍용건설이 공사에 참여하며, 총공사비는 3468억원(당사분 1100억원).

십정5구역은 지하철 1호선 간석역, 동암역을 도보 7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고, 경인고속도로 가좌C로의 접근이 수월하다. 또한 인천



십정5구역 재개발 조감도

중심권(구월동 중심상업지역)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지역으로 선호도가 높다. 아파트는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구성되며,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현대건설 글로벌 페이스북 OPEN!

우리 회사가 7일 영문으로 구성된 '현대건설 글로벌 페이스북(www.facebook.com/HDEC.Global)' 페이지를 오픈했다.

외국인 고객 대상의 글로벌 페이스북은 현대건설의 영문 홈페이지와 연계해 ▶기업 최신 뉴스 ▶기업 브랜드 홍보 ▶우수 사업 실적 ▶현장·지사 소식 등 다양한 내

용을 담을 예정이다. 모든 콘텐츠는 영문으로 주 2회 업로드된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해외시장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직원은 물론 발주처 및 관계자, 예비 건설인 등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을 개설했다"며 "향후 일관된 글로벌 고객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 기업의 인지도·선호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YUNDAI MOTOR GROUP

48km, 세계 최장 해상교량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내일의 기술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는 쿠웨이트시티와 북부 수비아 지역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해상교량으로 1,100여개의 해상 말뚝은 고층빌딩 높이(60m)며,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변북로보다 긴 48km입니다.

바다를 가르는 48km

현대건설의 첨단 기술이 미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장대교량 건설기술 초고강도 케이블 및 가설공법 / 교강도·내구성 콘크리트 / 내풍설계·해석기술
스마트 건설기술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재료에너지빌딩 / IoT 스마트홈 / BIM기반 디지털 건설

친환경 기술 해수 담수화 / 하·폐수처리 및 물 재이용 / 오염토양 정화
지속가능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 해양에너지(해상풍력/조류발전) / 태양열에너지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Wan Island offers a lush escape to take a rest

Mar 04

The azure skies of Wan Island off the coast of South Jeolla have been bright despite the foggy weather that's been enveloping the country since the New Year. The island's green produce and calm seas have been welcoming visitors in search of serenity. Its famous arboretum that leads to the Sanghwangbong peak offers a vibrant emerald view.

The evergreen oak trees (*Quercus acuta*) are the island's treasure. Since people began inhabiting the island, its trees have been used to assist in building houses and farming. The wood of the oak trees is not only stronger than pine trees, but are also resistant to decay from sea water. The trees can only be found in two areas of the country, one of which is on Wan Island. A mountain takes up 60 percent of the island, and two thirds of that is made up of the Wan Island arboretum.

Walking into the forest is like experiencing a breath of fresh air. The arboretum also hosts camphor trees, whose leaves are used for aromatic medicine and insect repellents. Living alongside these trees is a large variety of wildlife that populate the mountain.

Recommendations for 2-day trip to Wan Island

1st day

6am Seoul station

There are two trains that leave from Seoul on the KTX railroad before 6 a.m. Leaving at the wee hours of the morning would reward weary travellers with a filling breakfast upon arriving at Mokpo station, such as its famous nakji yeonpotang or octopus soup. Upon arrival, renting a car from the station is a recommended idea for travel around the island.

9am From Mokpo to Haenam county



Though the quickest route recommended by most navigation services will be by taking the highway, going by the 806 local road towards the Haenam peninsula will allow the best view of the farmlands.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has recommended this peninsula as a vacation spot worth visiting this month as well.

10am

The marketplace

The Namchang market (Picture 1) in Haenam is one of few existing marketplaces in the countryside that continue to see an increasing number of visitors. Elsewhere, the Wan Island central market is open for business every day of the week.

11am

Wan Island arboretum

The forest trail leading up to the famous arboretum is 50 kilometers (31 miles) and is often used by locals as a hiking trail. The path is a relatively accessible course for visitors of all ages. The recommended path visits the Sanlim Museum

(Picture 2) tucked away inside the forest. Taking the swiveling trail up toward the wooden deck 600 meters (656 yards) into the path allows visitors to have the feeling of walking through the clouds, especially on foggy days. The round trip to the museum takes about 5,000 steps and is approximately 3 km long.



6pm

Seafloor seawater sauna

It would be an understatement to say taking a dip in the seawater baths is relaxing. Travelers wishing to visit the sauna will need to go to the Wando Hotel. The sauna is open only from 5 to 7 p.m.



10pm Stargazing in the arboretum

Mount Obong acts as a wall that blocks any light from protruding in, which makes the forest a fantastic location for stargazing. The recommended location in the forest for stargazing is at the walking trail near the lake.

2nd day

7am Morning walk

The mountain is foggy in the morning due to the nearby lake and valleys, and walking between the peaks of Sanghwangbong and Beakunbong gives hikers the magical feeling of walking through the clouds.

1pm Tasting a rare delicacy

Taking plant life growing on rocks on the seashore and adding it as an ingredient to doenjangjuk has been a culinary tradition unique to Wan Island. Referred to as getguk, these plants are increasingly hard to find so even locals rarely get to enjoy this dish. Kim Suk-hui, restaurant owner of Binggeurae Sikdang, referred to it as the "dish before disappearing."

3pm Returning to Haenam

Driving back across the bridge, visitors can take a visit to the peaks of Mount Dalma, which goes as high as 638m at the peak of Gogyebong. Standing atop the cable car tower located at this peak rewards hikers with yet another view of the lush green mountain. Visitors may also take a look around Mihwang Temple, which is highly recommended for those looking to do a temple stay.

By KOREA JOONGANG DAILY

10 minute Korean Lessons

Basic



What is a good expression for the first greeting?
 "잘 부탁드립니다."

Situational context

Michael is exchanging greetings with a Korean now. It is usual to introduce oneself at the first meeting. It seems that Michael doesn't know what to say after introducing himself. At that point, he can say, "잘 부탁드립니다."

Dialogue

영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apeuro jal butakamnida.
 마이클: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jeodo jal butakamnida.
 Yeong-min: I hope we can get along well.
 (It's a pleasure meeting you.)
 Michael: I hope we can get along well.
 (It's a pleasure meeting you.)

One more expression

You can use "잘 부탁드립니다." (I hope we can get along well.) When you entrust somebody with a task or ask something, such as "이번 일을 잘 부탁드립니다." (Please take care of this matter business well.)

Intermediate



How to say that you sincerely hope to get hired by a Korean company.
 "한국 회사에 취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Situational context

When Michael was preparing to get a job after he graduated university, his friend asked him what he wanted to do after graduation. He wants to express that he really wants to work at a Korean company. At this Point, he can say "한국 회사에 취직이 됐으면 좋겠어."

Dialogue

필립: 마이클, 어디에서 일하고 싶어?
 Michael, eodi-eseo irago sopeo?
 마이클: 난 한국 회사에 취직이 됐으면 좋겠어.
 nan Hanguk hoesa-e chwijigi dwaesseumyeon jokesseo.
 Phillip: Michael, where do you want to work?
 Michael: I wish I could get a job at a Korean company.

One more expression

'[Verb/Adjective](았/었)으면 좋겠어요' can be used to express one's hope for something sincerely. You can also say "내일은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어요." (I hope tomorrow's weather will be fine.)

Please scan the QR code for more Korean language learning resources.
 Source: 세종 누리 학당(Nuri-King Sejong Institute) www.sejonghakdang.org



Group News

Hyundai Motor Reveals Next Generation Fuel Cell Concept at Geneva Motor Show



Hyundai Motor unveiled its futuristic FE Fuel Cell Concept that looks ahead to the next generation of hydrogen-powered vehicles. Having established itself as a global leader for hydrogen transportation, the company has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fuel cell vehicle development at

the Geneva Motor Show 2017. The FE Fuel Cell Concept represents the next step for Hyundai Motor toward realizing its ultimate ambition of creating a zero-emission Hydrogen Energy Society.

The car is designed to run for more than 800 kilometers between refueling, acknowledging the current limited hydrogen infrastructure. Elements of the FE Fuel Cell Concept will influence an SUV Fuel Cell model set for launch in 2018, which will feature advanced 'Hyundai Smart Sense' driver assistance technologies, alongside an extensive hydrogen-powered range.

Hyundai Achieved Its Best Ranking Ever



Hyundai improved dramatically in the 2017 J.D. Power Vehicle Dependability Study (VDS) with an industry-leading reduction in problems reported by owners, ranking sixth among all nameplates. Problems per 100 Hyundai vehicles declined by 25 points, or 16 percent,

and Hyundai moved up 13 rank positions from 2016 in the nameplate rankings, marking the company's best ranking ever. "Hyundai's dedication to product quality is a foundational part of our overall strategy. The VDS ranking demonstrates our continuous effort to be better," said Barry Ratzlaff, vice president, customer satisfaction, Hyundai Motor America. The VDS measures problems of three-year-old vehicles, primarily in categories such as engine/transmission, driving experience and Audio/Communication/Entertainment/Navigation. A lower score means higher quality.

창립 70주년을 맞아 현대건설의 역사를 바로 알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에서 글로벌 특 건설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눈부신 발자취를
<사보신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② 1960년대 국내 프로젝트(II)
**불굴의 현대정신으로
국토의 대동맥을 잇다**

경부고속도로 공사.

국내 1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1960년대 후반, 정부가 ‘고속도로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속도로 건설 시대’가 시작됐다. 1964년 당시 독일의 아우토반을 보고 감명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소신을 갖고 구축한 중요한 사업이었다.

현대건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전에 이미 국내외에서 고속도로 시공 경험을 쌓았다. 경인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완공한 현대건설은 1968년에 주도적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16개. 이 가운데 고속도로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는 현대건설이 유일했다. 정부가 경부고속도로의 첫 구간이자 시범구간인 서울~오산 간 수원공구를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에 맡길 것도 경부고속도로에 참여한 전 건설업체에 모범을 보이기 위한 조치였다.

경부고속도로는 전체 길이 428km(4차로), 일반교 281개소, 장대교 29개소, 터널 6개소로 건설됐다. 동원된 인원은 540만 명, 공사비도 429억원에 이른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최소경비, 최단기간, 최단거리라는 3원칙을 지키기 위해 작업 현장에 간이 침대를 가져다 놓고 직원들을 돌려했고, 지프차를 타고 공사장 부근을 계속 돌며 체크했다. 수원공구는 서울~수원 간, 수원~오산 간으로 구분해 거의 동시에 공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에서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 이르는 총 연장 65.9km의 천안공구는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 중 종단 계획가가 가장 낮은 절토 구간으로, 전 구간에서 용수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전공구는 충북 청원군 옥산면을 시점으로 충북 옥천군 청송면에 이르는 74.4km의 구간. 이 지역은 산세가 험준해 어려움이 많은 돌관현상이었다.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집에 갈까 말까 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워낙 험한 곳이라 한가할 여유가 없었고, 새로 도입한 장비는 계속 망가져 장비 부족 현상도 겪었다. 공사 진도는 하루에 많아야 2m 정도, 나쁜 날에는 30cm가 고작이었다. 특히 충북 옥천군 이원면과 청성면 사이의 상·하행선을 분리한 대전공구의 당채터널에서는 무려 13회에 걸친 낙반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직원들의



소양강 다목적댐.

노고 끝에 1970년 6월, 당채터널 공사가 마무리됐다. 착공한 지 290일 만의 일이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현대건설은 정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받는다. 가장 큰 성과는 현대건설의 기술진이 대형 국책공사를 리드하는 위치에 올랐다는 것. 또 한국 기술진과 자본으로 이룬 공사였기에 이제 어떠한 난공사가 닥치더라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다는 무한한 자신감과 가능성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대건설의 고속도로 시공기술은 이 공사에 참여한 전체 건설업체에 보급돼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시공능력을 단시간 내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국내 첫 사력댐, 소양강댐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1960년대 2대 토

은 높이 123m, 댐 길이 430m로 20만kW의 수력발전 설비를 시설한 것으로 토목·건축·기계설치 공사가 총망라된 종합 대형 공사였다. 동원된 건설장비만 56종 414대나 됐다. 애초 소양강댐은 콘크리트 중력댐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기초 자재에서부터 이 같은 대규모 공사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설사 자재 수급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산간벽지까지의 운반에 엄청난 돈을 쏟아야 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소양강댐이 들어설 자리 주변에 널려 있는 모래와 자갈을 떠올렸고, 이를 바탕으로 사력댐을 만들자고 제의한다. 물론 주변의 우려가 컸다. 그러나 “폭격을 당해도 콘크리트댐처럼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데다 경비가 적게 든다”고 끊임없이 설득했고, 결국 그 제안은 받아들여졌다. 준비 공사, 가배수로 공사, 물막이 공사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소양강댐은 성토 재료의 다짐이 극히 중요했다. 현대건설은 성토 전 축조 재료에 대한 성토시험을 했고, 경제적이고 안전한 함수비를 조정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소양강댐은 당초 예산의 30%를 절감해 완공할 수 있었다. 이 댐이 건설되기 전까지 사력댐은

**주도적으로 경부고속도로에 참여
국내 고속도로 시공능력을 단시간에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켜**

목공사의 하나로 꼽히는 것은 소양강 다목적댐이다. 이 공사는 규모뿐 아니라 기술 면에서도 한국 댐 건설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온 공사였다. 소양강댐은 1957년 구상됐지만 정부의 재원 부족과 국내 건설업체들의 기술 미숙으로 미뤄 오다 1967년에 이르러서야 착공해 1973년 준공됐다. 소양강댐

높이 30m 이내의 댐에서만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통념이었지만, 현대건설은 이 통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정주영 회장은 소양강댐을 성공적으로 준공한 후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가면서 나가면 된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②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1960s (II)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10-yea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expressways in the late 1960s, heralding a new era of expressway construction.

Hyundai E&C successfully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an expressway connecting Seoul and Incheon, which led the builder to take the leading role in the Gyeongbu Expressway project in 1968. As many as 16 construction companies took part in the project, and among them Hyundai E&C was the only builder that had the experience in expressway construction. Later, related construction technology of Hyundai E&C brought the country's construction capability in the field of expressway development to the global level in a short period of time.

Over 40 billion won was required to construct the 428-kilometer expressway with four lanes

involving 281 bridges, 29 long-span bridges and 6 tunnels, Korea's primary builder was awarded the Gold Tower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in recognition of the devoted efforts to build the route number 1. The feat the company pulled off was that the successful construction of Korea's most important expressway instilled in Hyundai E&C people a sense of unlimited confidence and boundless potential as the monumental project was conducted by a group of home-grown engineers and domestic capital.

Together with the Gyeongbu Expressway, the Soyang Dam is considered one of the larges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1960s. It is regarded as a landmark project in the history of Korea's dam construction in terms of size and technology. The multipurpose dam stands 123 meters high and 430 meters long and can generate 200,000 kW/h of electricity. The massive project encompassed civil, architectural and machine engineering technologies. It was originally designed to be built as a concrete gravity dam. However, there were problems with the supply of construction materials as well as the huge cost of transporting the materials to the mountain region. To solve the problems, Hyundai E&C honorary chairman Chung Ju-yung suggested the use of sand and gravels around the Soyang River to construct a rock-fill dam. Until then it has been believed that only a rock-fill dam up to 30 meters high is economically feasible. However, Hyundai E&C broke the generally accepted idea and opened up new possibilities in regards to dam construction.



Gyeongbu Expressway project (Dang-jae Tunnel)

우리 회사가 3월 3일과 4일 양일간 '2017년 현대건설 H 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55개 협력사와 우리 회사가 상생협력의 뜻을 되새기며 동반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시간이었다. 글=김보나 / 사진=이슬기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0
2017/03/10/Friday

2017년 H 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 협력사와 함께... '같이'의 '가치'



1 2017년 H 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 4 우리 회사 임직원과 협력사 협의회 대표들은 손을 맞잡고 환한 얼굴로 인사를 나눴다. 3 정수현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회사와 협력사의 상생과 앞으로의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5 만찬과 공연을 통해 참가자들이 즐겁게 화합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6, 7 구매본부 직원들로 구성된 '하이파트너 밴드'와 H Leaders의 열띤 공연 덕분에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었다.

H Leaders와 우리 회사, 제주도에 얽힌 추억

지난해 1월, 제주도는 우리 회사와 협력사에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겼다. '2016년 H 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던 날, 난데없는 폭설이 내려 무려 3일 동안 제주도에 발이 묶인 것. 협력사 대표들과 우리 회사 직원들은 돌발 상황에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하며 위기 속에서 더욱 끈끈한 동지 의식을 나눴다. 당시 협력사 대표들은 "예기치 못한 일에도 불구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현대건설 직원들을 보며 협력사를 대하는 진정성을 느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 참가자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고, 한편으로 즐거운 추억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짓곳은 제주의 날씨를 올해에도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당초 2월에 예정됐던 경영자 세미나 행사 당일, 갑작스레 강풍이 불어닥쳤다. 제주행 비행기가 지연 또는 결항되면서 협력사 대표들과 우리 회사 관계자들은 아쉽게

만 일정을 미뤄야 했다. 그렇게 한 달여 뒤인 3월 3일, 155개 협력사 대표들이 드디어 제주도로 향했다.

최고의 협력은 소통에서 비롯된다

우리 회사가 제주도에 협력사 협의회 정기총회와 경영자 세미나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6회째. 2011년에는 구매와 외주로 분리돼 있던 협력사 협의회를 한데 묶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총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는 협력사 협의회 대표들을 'H Leaders'로 명명하고 분과별 간담회를 신설하며 소통을 강화했다. 3월 3일과 4일 양일에 진행된 '2017년 현대건설 H 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는 H Leaders와 우리 회사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재장비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분과별 간담회인 웰컴 리셉션과 정기총회, 우수협력사 포상과 특강, 멤버십 강화 행사 등 알찬 일정으로 채워졌다. 첫 프로그램인 웰컴 리셉션에서 참가자들은 우리 회사 임직원 및 분과 구성원들과 "VOC(Voice Of

MINI Interview

H Leaders 회장
관악산업 이규형 대표



"H Leaders 총 5개 분과는 매월 각 분과장 모임 및 연 2회 분과별 회원 모임을 갖는 등 현대건설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현대건설 2017년 조직문화 키워드인 '소통과 협력'이 현대건설과 협력사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직한 가교 역할을 해내는 H Leaders를 만들겠습니다."

2016년 최우수 협력사
경창계전 이상욱 대표



"1960년대부터 이어온 현대건설과의 인연이 '최우수 협력사'라는 이름으로 더욱 끈끈해진 것 같이 무척 영광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특히 환절기나 동절기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 점, 그리고 재작업이 없도록 철저히 작업한 점을 좋게 평가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H Leaders의 정기총회,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외주실 상생협력팀
최영기 부장대우



"기상악화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완벽을 기하는 기회로 삼아 맑은 하늘의 제주에서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H Leaders 대표님과 사장님, 경영진을 비롯한 구매본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경험으로 H Leaders와 현대건설의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춘 만큼 서로의 동반성장을 이어가는 좋은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Customer)' 시간을 갖고 우리 회사에 대한 개선 및 당부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이어진 분과별 토의에서는 우리 회사가 제시한 토론 주제에 따라 1년간의 분과별 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실시한 상·하반기 간담회와 분과별 만찬 등의 활동을 올해에도 이어가기로 하고, 새롭게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정해진 토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H Leaders의 제안은 활발했다.

H Leaders,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동지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된 경영자 세미나에서는 우리 회사 임원 및 H Leaders 임원단 소개와 우수 협력사 포상이 실시됐다. 우수 협력사는 외주 부문과 구매 부문으로 나누어 분과별 평가 점수 상위 업체를 선정했다. 최우수 협력사로 꼽힌 기전주분과의 경창계전(대표 이상욱)은 정수현 사장으로부터 금 10돈과 상패를 부상으로 수여받았다. 이외에도 외주 7개사, 구매 3개사의 업체가 우수 협력사로 이름을 올렸다.

정수현 사장은 인사말에서 동지 의식을 강조하며 '독수리가 되고 싶다면 독수리 떼와 함께 날아라'라는 말을 인용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준거집단에 따라 목표 달성이 좌우되기에 "탁월한 역량을 지닌 협력사와 함께하는 현대건설은 참 운이 좋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유기체적인 상호 협력을 위해 항상 대문을 활짝 열고 적극적인 소통에 임하겠다"고 밝히고, 참가자들에게 탁월한 공사 수행 능력과 관리 능력, 원가율 절감 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임원진 및 외부 강사가 진행한 특강으로 경영자 세미나는 점차 무르익었다. 임원진 특강에서는 ▶김택규 기획실장의 '건설 산업환경 및 미래 건설의 변화' ▶류철희 PRM사업부장의 '안전활동, 먼 곳에 있지 않다!' ▶서상훈 구매본부장의 '2017년 주요 구매 정책' 등을 통해 건설산업 환경을 점검하고 H Leaders와 우리 회사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했다. 외부 강사 특강에서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의 최윤식 소장이 '4차 산업혁명, 제4의 물결이 온다'를 주제로 국내 및 해외 경제 전망 및 지능 혁명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우리 회사는 만찬과 공연을 통한 화합의 장도 마련했다. 구매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하이파트너 밴드'와 유쾌한 립싱크 공연을 선보인 '허리케인 블루'의 무대에 협력사 대표들은 환호로 화답했다.

하나의 목표, 모두의 꿈

다행히 맑은 날씨를 보인 이튿날, 참가자들은 마지막 일정한 멤버십 강화 활동을 소화하고 서울로 향했다. 1박2일 동안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지 의식을 나누는 참가자들의 발걸음은 전날보다 더욱 가벼웠다. 참가자들은 마지막 인사와 함께 서로를 향한 응원도 아끼지 않았다.

활기찬 제주의 봄기운을 담은 이번 행사는 H Leaders와 우리 회사 모두의 한 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 회사는 H 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 외에도 올해에 우수 협력사 해외 현장 견학, 기술교육원을 통한 협력사 우수인력 채용 지원, 동반성장 펀드 운영을 통한 자금 지원 등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테마토크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사랑하는 아내와 여자 친구를 위해 '마카롱 만들기 일일 클래스'에 지원한 네 명의 사우를 만났다. 막 사랑을 시작한 커플이나 싱글들이 필독해야 할 이야기거리가 한가득 나왔다. 글=박현희 / 사진=안오성

HYUNDAI E&C TODAY
http://news.hdc.kr
Vol.329
2017/03/10/Thursday

‘마카롱 만들기’ 일일 체험 사우 4인 “꽃 피는 봄, 달콤하게 사랑하세요~”



박귀운 대리(PRM전락실), 강진구 대리(안전관리실), 김윤호 대리(플랜트기획실), 민복기 과장(인프라환경엔지니어링실) (왼쪽부터).

화이트데이를 보름 앞둔 2월의 마지막 날. 직접 만든 마카롱으로 연인에게 사랑을 전하려고 사우 4명이 서울 계동 인근 마카롱 카페 회원에 모였다. 아내 혹은 여자친구에게 직접 만들어 선물 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네 사람은 잔뜩 기대감에 찬 얼굴이었다. 마카롱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과자로, 일반 쿠키와는 달리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머랭(Meringue, 계란 흰자에 설탕을 조금씩 넣어가며 세게 저어 거품을 낸 것)에 아몬드 가루를 넣어 크리스트(Crust)를 만들고 그 사이에 잼, 가나슈, 버터크림 등의 필링(Filling)을 채워 샌드위치처럼 만드는 것이 포인트. 강사에게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본격적인 마카롱 만들기에 돌입했다.

“단짠”이 조화로운 소금 캐러멜 마카롱과 상큼한 맛이 일품인 산딸기 마카롱을 만들었다. 사우들은 주걱으로 머랭과 아몬드가루를 잘 섞은 후 반죽을 찰주머니에 담았다. 코팅된 사각 쟁반에 동그라미나 하트 모양으로 정성스레 패닝(Panning)하는 모습에서는 비장함까지 느껴졌다. “집에서 파이는 가끔 구워 봤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과를 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시중에서 파는 마카롱처럼 예쁜 동그라미를 만들고 싶는데, 페

어렵네요. 크기와 모양은 조금씩 달라 도 맛은 좋겠죠(웃음)?” (민복기 과장) 소금 캐러멜 마카롱용 크리스트를 굽는 동안 산딸기 마카롱 만들기에 들어갔다. 강사가 미리 만들어둔 크리스트에 크림치즈와 산딸기 잼을 채워 넣으라는 미션이 주어졌다. ‘필링을 얼마나 넣어야 할까’ 궁리하는 눈빛은 새로운 놀이를 발견한 어린이의 눈빛을 같았다. 필링을 채워 넣는 동안, 사우들이 직접 만든 크리스트가 오븐에서 맛있게 구워져 나왔다. 잠시 식힌 다음 캐러멜 버터크림을 짜 넣으니 꽤 근사한 마카롱이 완성됐다.

“카페에서 마카롱을 사 먹을 때면 ‘이 작은 과자가 왜 이리 비쌀까’ 생각했었어요. 직접 만들어 보니 그런 생각이 속 들어가네요(웃음). 강사님께서 마카롱 만드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나눠주셨는데, 맛기 전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강진구 대리)

마카롱은 사랑용 타고, 사우들의 연애 & 결혼 토포스터리

Q 오늘 만든 마카롱은 누구에게 선물할 건가요?
강진구 대리(이하 강) 아내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 줄 거예요. 11월 26일에 결혼해 유부남이 된 지 아직 100일이 안 됐어요. 연애 기간 중 야근도 잦았고, 해외 현장 근무도 했던 터라 아내가 많이 서운해 했어요. 그 이후로도 업무가 바빠 이벤트 한 번 제대로 해주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얻어 무척 기뻐요.
박귀운 대리(이하 박) 저 역시 아내에게 선물할 거예요. 8년 연애 후 2010년 1월이 결혼했는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있는 시간이 2년이 채 되지 않



까 생각합니다(웃음).

Q 각자의 연애 그리고 결혼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언제 처음 만났나요?

민 대학 후배의 소개로 2007년에 처음 만났어요. 당시 박윤우 과장은 학부 4학년이었고, 저는 대학원 첫 학기를 다니고 있었죠. 박 과장은 엉뚱한 매력이었어요. 보통 대화를 하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반응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박 과장은 그 예상을 늘 빗나갔어요. 요새는 그 선을 넘어 기가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웃음), 항상 새로운 리액션이 나오니까 매력적이었죠.
강 최선을 다해 취업 준비를 한 후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나니 외로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만난 대학 동기의 카카오톡 친구 리스트를 살피다, 프로필 사진만 보고 ‘이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콕 집어 이야기했죠. 그렇게 처음 만났는데, 첫날부터 대화가 정말 잘 통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밥도 거의 먹지 않고 이야기를 나눴죠. 만난 지 세 번째 되는, 첫 출근을 하루 앞둔 날에 사귀자고 고백했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물론 결혼도 일사천리로 진행됐고요.

박 저는 하도 오래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웃음). 대학 입학 후 군입대 전부터 아내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주로 제가 연락하는 쪽이었죠. 입대해서도 자주 편지를 보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제대 후 길을 걷다 우연히 아내를 만났고, 그때부터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됐죠. 당시 사진이 취미여서 아내와 출사를 많이 다녀왔어요. 오랜 시간 알고 지냈고, 여러 추억을 쌓은 덕분에 아내는 가랑비에 옷 젖듯 저에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결국 제 고백을 받아들였죠.

김 해의 현장에서 본사로 복귀가 예정돼 있었을 때 친구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연락처를 미리 받아 복귀 할 날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죠. 전화와 문자 메시지만 하다 한국에 복귀한 후 처음 만났는데, 세상에! 너무 예쁜 거예요. 빛이 날 정도로 아름다워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죠. 그래서 만난 그날 고백했어요. 사귀자고요!

Q 이 기사를 보는 싱글들을 위해 이성을 사모잡는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강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둘 다 호감이 없다면 잘 말 걸 잘 먹지 않아요. 오늘 만든 마카롱은 아마 박윤우 과장이 모두 먹지 않을

직접 만든 선물은 처음... 서툰 솜씨지만 마음만은 완벽해



지급 용기를 내세요!
박 아내는 저를 그저 연한 친구로만 생각했대요. 좋은 친구로 오랫동안 보고 싶은데, 고백을 하니까 처음엔 많이 당황스러웠다고요. 거절하면 자기 곁을 떠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결국 고백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노하우라고 말하기엔 거창하지만, 상대가 나를 편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야기 도 잘 들어주고요. 단번에 상대의 호감을 살 수 없다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

는 거죠.
김 미소와 친절, 적극성이에요! 호감이라는 건 그 사람을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듯 호감 가는 이성이 있다면 미소를 띤 얼굴로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민 소개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팁이 많아요. 이성을 소개받고 싶다면,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줘야 해요. 확신이 있어야 ‘이 친구,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라며 타인에게도 자신감 있게 소개해 줄 수 있으니까요.

회사 생활에도 이벤트가 필요하다

Q 연인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적절한 이벤트와 마음을 담은 선물이 필요함이다. 회사 선후배, 동료와의 팀워크 향상에도 이 같은 이벤트가 필요해보이는데요.

민 회사에서 농구 동아리(농구사랑)를 하고 있어요. 같은 부서자 아니어도 2주에 한 번 만나 운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회사에서 마주치면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요. 저는 부서 사람들과 운동하는 시간이 많았어 좋았어요. 딸 출마를 운동하면 어느새 끈끈한 사이가 되곤 하니까요.

김 우리 팀은 성격이 활발하고, 웃음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요. 평소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지만, 축구나 족구 같은 활동을 함께 한다면 더욱 팀워크가 좋아질 것 같아요.
박 맞아요. 축구 게임 후 즐기는 맥주한 잔! 해외 현장을 가면 축구나 족구를 많이 하는데, 본사에 오니 그런 활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강 출장이 잦은 팀이라 팀원들이 자리를 비울 때가 많아요. 가끔 모여 회식하는 게 전부인데, 그런 술자리도 좋지만 ‘사

랑의 제빵 봉사’같은 사회 공헌 활동을 팀 사람들과 함께 해보고 싶어요. 이웃 사랑도 실천하고, 팀워크도 다지는 거죠(웃음).

Q 우리 회사에서는 매월 둘째-셋째 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날은 주로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강 아내와 주로 영화를 봐요. 재미있게 영화를 보고 집에 들어오면 와이인과 함께 그날 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내에게 서운했던 것도,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눈 녹듯 사라져요.
김 자취생이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진 않고요. 평소 자주 보지 못한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주로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 고향 동장들을 만나는데, 제게는 그 시간이 무척 소중한답니다.
박 주말부부라 저 역시 자취생과 다름없는 생활을 합니다. 가정이 없는 동료들과 술잔만 나누는 거죠.
민 사내부부에게 ‘가정의 날’만큼 좋은 날이 있을까요(웃음)? 서로 야근도 많고, 아이들이 일찍 자는 편이어서 퇴근을 7시에 한다고 해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1시간이 안 돼요. 5시에 아내와 함께 퇴근해 집에 도착하면 아들·딸과 최대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마구잡이로 춤을 추

거나, 노래를 불러요. 퍼즐 맞추기를 할 때도 있고요. 말 그대로 ‘가정의 날’을 보내는 거죠(웃음).

Q 꽃 화이트데이입니다. 아내나 여자 친구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박 줄곧 떨어져 살았는데, 잘 이해해 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지 바라 보자.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사는 남편이자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김 예쁘고 지혜로운 매력까지 있는 선영아, 항상 옆에서 믿어주고, 힘이 되어줘서 고맙다. 나도 항상 너의 곁에서 힘이 되어줄게. 선영아~ 사랑해!
민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네. 예전처럼 알콩달콩한 면은 없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은 더 두터워진 것 같아. 두 아이가 커가는 만큼 우리의 사랑도 계속 성장하겠지?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 항상 고마워!
강 어린 나이에 결혼해 생각지도 않던 수많은 집안일에 부대끼며 고생하는 내 사랑하는 아내 선경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너와 함께라면 즐거워! 부족한 나지만 항상 이해해 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싸우지 말고 꼭~ 행복하자. 이제 보다 오늘 더 사랑해!

꽃피는 봄은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다. 겨우내 내 마음속도 만물이 소생하듯 무언가가 피어오른다. 따뜻해진 날씨에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하기에도 좋다. 그래서 준비했다. 연인과 함께 가면 좋은 데이트 명소 베스트.

꽃 피는 봄, 데이트 핫스팟 베스트

답블루레이크 망원시장을 지나다 보면 눈에 띄는 건물이 있다. 푸른 벽돌로 된 4층짜리 카페, 답블루레이크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한 아내와 커피를 만들던 남편이 함께 운영하는 카페답게 분위기도 맛도 모두 훌륭하다. 잔잔한 에스프레소와 마이크로 스팀밀크를 더한 ‘플랫 화이트’가 인기 메뉴. 북유럽 스타일의 파스텔 톤 컬러의 인테리어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연인들에게 딱이다.
위치 서울시 마포구 포은로 6길 11 문의 02-323-8532



구내식당 독특한 상호명 탓에 건물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가끔 받기도 하지만,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가정식 밥집이다. 대표 메뉴는 따뜻한 밥과 국에 매일 다른 종류의 반찬이 가득 나오는 ‘오늘의 정식’, 가격도 70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위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9길 74 이펙트타워 101호 문의 070-5121-2710

817워크숍 망원동 유일의 루프톱 카페. 디자인 회사 817디자인스페이스가 운영하는 카페로 공간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 작품이다. 1층 벽면 전체를 검회색 벽돌로 마감해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했어. 각양각색의 식물을 뒤서 편안하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강조했다. 아메리카노에 꿀을 섞어 만든 ‘아메리카노’와 직접 기른 로즈메리와 레몬청을 섞어 만든 ‘로즈메리 메리드’가 인기 메뉴!
위치 서울시 마포구 포은로 822호 문의 02-323-1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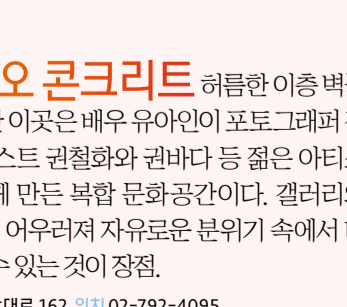


엘리스 청담 하얏트, 메리어트 호텔 등에서 바텐더로 근무한 김용주 대표가 오픈한 곳으로 지난해 ‘아시아 최고 바 50’에 선정된 바다. 영국의 저택처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특징. (이성환 나라의 엘리스)를 감명 깊게 봤다면 꼭 마음에 들듯, 각테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전문 바텐더가 추천해 주니 부담이 적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5길 47 1층 문의 02-511-8420

노마드 이곳의 매력은 프라이빗한 공간 구성과 ‘골드문트’라는 세계 최고의 음향시설! 여기에 런던에서 바텐더 교육 받은 전문 바텐더와 글로벌 바텐더 대회 수상자들이 선사하는 다양한 크래프트 칵테일, 3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위스키까지 만날 수 있다. 연예인들의 단골 술집으로도 유명한 만큼 특별한 날 특별한 기분을 낼 수 있는 공간이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01길 28 문의 02-511-1283



스튜디오 콘크리트 허름한 이층 벽돌 집을 개조한 이곳은 배우 유아인이 포토그래피 김재훈, 아티스트 권철화와 권바다 등 젊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만든 복합 문화공간이다. 갤러리와 카페가 한데 어우러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 위치 서울시 용산구 난봉대로 162 위치 02-792-4095



5만원권의 주인공, 신사임당이 재조명되고 있다.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덕분이다. 신사임당이 5만원권 모델이 된 것은 그가 한국의 대표적 현모양처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임당과 울곡 이이의 살아생전에는 현모양처의 대명사가 전혀 아니었다. 글=김중성 동아시아역사연구가

‘현모양처? 당찬 워킹맘!’ 우리가 몰랐던 신사임당 이야기

이이(李理)가 태어난 곳은 어머니의 고향인 강릉이다. 이이는 네댓 살까지 여기사 살았다. 그 당시 대부분 신랑은 처가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몇 년을 살다가 자기 집으로 이사했다. 평생 데릴사위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 이이의 아버지인 이원수도 그런 코스를 밟아 강릉에서 아이를 낳은 뒤 파주로 돌아갔다.

시택에 간 신사임당은 오래 살지 못했다. 10년 정도 살았다. 1504년생인 그는 1551년 48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이때 이이는 열여섯 살이었다. 당시 이이는 어머니를 현모양처의 대명사가 아니라 훌륭한 화가로 알고 있었다.

신사임당은 죽기 전에도 훌륭한 화가로 칭송 받았다. 그의 산수화를 극찬한 사람들은 그와 동시대 사람들이었다. 16세기 초중반의 문장가로 유명한 어숙권은 수필집 『패관잡기』에서 신사임당을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 포도 그림과 산수화는 한때 최고였다. 비평가들은 그를 안견 다음 간다고 말한다”고 평가했다. 안견은 꿈속 낙원을 묘사한 <몽유도원도>로 유명하다. 그런 안견에 견줄 정도의 대가로 사임당을 극찬한 것이다.

현모양처 신화의 생산

화가 신사임당이 현모양처로 둔갑한 데는 정치적인 사연이 있다. 사람과라 불리는 유립 세력이 정권을 잡은 것은 선조 임금이 등극한 1567년이다. 정권을 획득한 사람과는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갈라졌다. 동인당은 이황을, 서인당은 이이를 따랐다.

서인당은 광해군을 몰아낸 1623년부터 반세기 동안 장기 집권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인 숙종 임금 때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 숙종이 1674년 왕이 되면 서부터 서인당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동인당의 분파인 남인

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서인당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로 울곡 이이의 어머니를 신성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서인당의 지도자 송시열은 신사임당을 거룩한 현모양처로 떠받들었다. ‘현모양처 밑에서 성장한 위대한 울곡 이이를 모시고 있으니, 서인당은 훌륭한 정치집단이다!’라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송시열은 신사임당의 이미지를 바꿀 목적으로 신사임당 그림에 대한 기존 비평을 깎아내렸다. 송시열은 산수화를 잘 그렸던 사임당의 이미지를 지우고 ‘초충도(草蟲圖)의 화가’로 부각시켰다. 성리학 세계관에 입각해 ‘풀과 벌레 같은 미물을 사랑하는 인자한 어머니’라는 프레임에 씌운 것이다. 또한 송시열은 사임당의 그림을 두고 “장난삼아 그린 그림 같지는 않다”고 했다. 신사임당의 미술 활동을 취미생활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언행이었다.

서인당의 지도자 송시열이 ‘모범’을 보이자 그를 추종하는 서인당 정치인들도 이 대열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신사임당의 삶이나 그림에서 현모양처 이미지를 찾아내는 데 가담한 것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임당은 화가가 아닌 현모양처로 둔갑했고, 그의 미술 활동은 현모양처의 한가한 취미생활로 바뀌고 말았다.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사임당은 화가가 아닌 현모양처의 이미지를 갖게 됐고, 5만원권 모델로까지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모범적인 ‘워킹맘’

사임당은 어머니로서의 의무도 충실히 해냈다. 그림 활동으로 바쁜 그 와중에도 딸 셋과 아들 넷의 교육에 만전을 기했다. 아이들이 유교 경전뿐 아니라 사·서예·그림 같은 예술적 소양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균형 잡힌 인격을 갖도록

도와준 것이다. 그런 노력의 결과, 첫째 딸 이매장을 풀벌레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로 만들었다. 첫째 아들 이선은 한성부 남부 참봉,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시 구청 9급 공무원으로 키웠다. 셋째 아들 이이는 장관급 공직자이자 위대한 철학자로 만들었다. 막내 아들 이우는 중앙부서 국장급으로 키웠다. 직업이 뭐든 간에 신사임당의 자녀들은 인문학과 예술을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바쁜 예술 활동 중에도 자녀들을 이렇게까지 키웠으니, 사임당은 훌륭한 어머니란 평가를 받을 만했다.

못남 남편 탓에 마음고생도 겪어

사임당은 남편에게 ‘양처’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이가 남긴 『선비 행장(돌아가신 어머니의 일대기)』에 따르면, 사임당의 남편 이원수는 포부는 컸지만 능력은 부족했다. 아들 이이가 1548년 열세 살 나이로 진사시험에 급제할 때까지도 이원수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다. 2년 뒤인 50세 때에야 그는 연줄을 이용해 특채로 관직에 진출했다. 연줄을 이용한 사실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는 원칙보다 변칙을 좋아했다. 이 때문에 사임당은 남편에게 수도 없이 “정도를 걸으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이원수는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자신보다 유능한 아내에게 열등감도 제법 느꼈다. 이원수는 담장 밖에서 아내와 정반대인 여성을 만나 첩으로 삼았다. 주막집을 운영하는 ‘권씨’였다. 권씨는 직설적이고 화를 잘 내며 변덕도 심했다. 밤새워 술을 마시고

아침에는 해장술까지 마셔야 하는 사람이었다. 사임당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여성에게서 이원수는 정신적인 안정을 찾고자 했다.

40대 후반의 사임당이 죽음을 목전에 둔 때였다. 그는 바람이 있는 남편이 새장가를 들어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했다. 조선 후기 숙종·경종·영조 때 관료인 정내주의 『동계만록』에 따르면 사임당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죽은 뒤에 재혼하지 마세요”라고 남편에게 말했다. “자식들이 이미 많으니, 무슨 자식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공자님 가르침에도 어긋나지 않아요”라고 했다. 이에 이원수는 “공자님도 아내를 버리지 않았습니까?”라며 빈정댔다. 사임당은 “공자님은 아내를 버리지 않았어요. 전란을 만나 아내와 떨어져 산 것뿐이죠”라고 대꾸했다. 이원수는 책을 꼼꼼히 읽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임당과의 이런 논쟁은 그의 짧은 지식을 드러낼 뿐이었다.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도 이원수는 사임당이 죽고 나서 얼마 뒤, 결국 권씨를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이원수 입장에서 사임당은 너무 부담스러운 아내였다. 이원수가 사임당을 심리적으로 기피했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사임당 빛의 일기〉 스틸컷. 극중 신사임당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의 ‘파주 이이 유적’에서 촬영한 신사임당 초상화.

정치적인 이유로 ‘현모양처’ 프레임 씌워... 화가로서의 삶 재조명해야



신사임당의 초충도. 현재 서울미술관에서 ‘사임당, 그녀의 화원’이란 주제로 전시가 열리고 있다. 기간은 6월 11일까지.

원만할 수 없었다. 성격도 정반대이고, 조화도 이뤄지지 않았으니 두 사람의 사이가 좋을 리가 만무했다. 사임당은 현모양처의 ‘양처’가 되기 힘들었다. 사임당은 양처가 되고 싶었겠지만 이원수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날 이이의 친가가 있었던 경기도 파주에는 사임당·이원수 부부의 무덤이 있다.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있는 합장묘다. 저세상의 사임당도, 이원수도 불쾌하기 그지없을 것 같다.

서인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만 않았다면 신사임당은 취미로 그림을 그린 현모양처가 아니라 시대를 풍미했던 훌륭한 화가로 우리 머릿속에 남게 됐을 것이다. 그림에 집중하는 그 바쁜 와중에도 자녀교육을 게을라하지 않은 부지런한 화가로 말이다.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에서는 그의 진짜 면모가 조금이라도 드러나기를 기대해 본다.

용기를 낸다는 것

봄이 오면 누구나 새로운 날들을 기대한다. 무언가 좋은 일들이 자신에게 찾아오길 바란다. 한 후배는 이렇게 말했다.

“올해는 인생의 전환점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사는 건 지긋지긋해요.”

그는 언젠가 자신을 극적으로 바꾸어 줄 무언가를 기대했다. 그것은 어쩌면 새롭게 맡게 되는 일일지도, 새로이 시작할 연애일지도 모른다. 어찌 되었건 그런 특별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막상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죽 들어보면 후배는 ‘이불 밖은 위험해’를 외치며 그 무엇에도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뭘 기다려, 네가 나서서 쟁취해야지.” “저도 원하기는 하는데... 용기가 없어요.”

그는 세상은 어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말문이 막혀 버렸다. 현실에 대해 불평과 불만은 많지만 정작 스스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배뿐이 아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해 보고 싶은데 걱

정이 앞서요.” “직장 상사에게 단호하게 대처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오요.” “이제 와서 외국어 공부를 시작해도 될까요?” “연애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직장생활도, 인간관계도 두려운 것 투성이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먼저 자신을 온 좋게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행운과도 같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가령 길을 걷다가 길거리 캐스팅을 받아 일약 유명해진 연예인들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우리는 들은 바 있다. 하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그런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 같은 이야기들은 대개 대중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말들이다. 지금 화려한 모습을 뽐내는 그들에게도 빛나지 못했던 오랜 시간들이 존재했다. 후배가

막연히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쩌면 ‘로또’ 같은 인생 대역전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로또’ 같아서 당첨 확률 자체가 거의 없다.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의 전환점은 애초에 찾아오지 않는다. 아니, 찾아와도 자기 자신이 눈치채지 못한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 후배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건 안 와. 그런 일은 그냥 생기지 않아.”

그뿐 아니라, 인생을 크게 뒤흔들어 줄 어떤 변화 혹은 인생의 대전환점은 종종 불행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기도 한다. 나의 경우만 봐도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일은 대다수가 불행과 연결돼 있다. 회사원에서 작가로 직업을 바꾸게 된 것도, 반복된 암 수술로 인해 더 이상 체력적으로 회사에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안 그랬다면, 나는 예전부터 내심 해보고 싶었던 글을 쓰는 일에 도전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16년째 같이 잘 살고 있는 남편? 남편과 연애하기 전, 나는 지지부진한 연애로 마음이 썩어가고 있었고, 그때 우연히 연애상담을 해준 것이 지금의 남편이었다. 당시 내가 남자 때문에 속썩고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지도 못했다. 생각해 보면 불행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들을 마련해 주었다. 다만 나는 그 불행한 상황에 주저앉거나 주변에 휩쓸리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상황을 움직여 나갔다. 그 때문에 불행과 위기는 긍정적인 변화로 탈바꿈돼 나의 인생을 좋게 만들어 주었다고 믿고 있다.

인생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원하지만 그것을 쉽게 가질 수 없을 때,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넌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하잖아.’ ‘바보 같은 생각 말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무난하게 살아.’라며 스스로를 비웃는 일은 그만두자. 이는 무언가를 하기보다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에 에너지를 더 쓰는 것이다.

그동안 ‘무난’하게 살아 왔으면 이제부터 다소 ‘무모’하면 어떠하리. 가끔은 그런 용기 있는 삶의 방식도 좋지 않을까. 지금은 안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거나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것만으로는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전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고 인생의 전환점을 찾기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인식과 자기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려면 일단 방향을 잡아야 할 목표를 명확히 찾고, 찾았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몸을 움직여야 한다. 그것도 내일부터가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임경선

작가·소설가

※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향해야 할 목표를 찾았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몸을 움직여야 한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문화 책갈피

화려한 퍼포먼스와 마음을 어루만지는 스토리, 아름다운 음악은 언제나 우리의 생기를 북돋운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연 및 체험으로 겨우내 굳었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자.

기분 전환&활력 충전, 봄맞이 문화체험



아이들과 동심 가득 **제업**

매직포레스트

3월 31일(금)까지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 아트스탠드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전시공간에서 움직이고, 손짓과 몸짓에 그림들이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전시이자 체험이다. 동물들이 살고 있는 마법의 숲에 위기가 닥치는데, 관람객인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숲과 동물들을 구해내야 한다. 따뜻한 봄날에 서울 숲 나들이를 겸해 들려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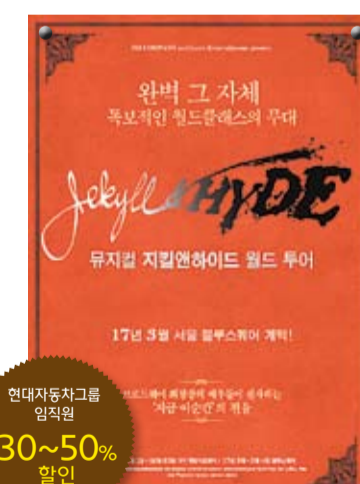


부모님과 흥 넘치는 **콘서트**

김건모 25th Anniversary Tour

3월 18일(토) 오후 7시
대전무역전시관

SBS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소탈하고 영동한 일상을 보여줌으로써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은 김건모가 콘서트를 갖는다. 지난 연말, 5년 만에 가진 전국 투어 콘서트가 조기매진을 기록한 것에 대한 대한 앙코르 공연이다. 20대부터 50대까지 넓게 사랑받는 ‘국민 가수’의 불멸의 히트곡과 가슴 찡한 최신곡을 만나 보자.



연인과 다정하게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3월 10일(금)~5월 21일(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1997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후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 중 하나로 우뚝 선 <지킬앤하이드>가 특별한 방식으로 한국 관객과 만난다. 한국의 프로덕션이 제작하고 브로드웨이 현지 배우들을 캐스팅해 월드 투어를 실시하는 것. 서울 공연에 앞서 열린 대구 공연에서 그 진가를 인정받았다.



친구들과 감성 돋는 **연극**

프라이드

3월 21일(화)~7월 2일(일)
대극로 아트원씨어터 2관

시의성 있는 주제와 감성적 메시지, 감각적 연출로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호평을 받은 <프라이드>가 2년 만에 돌아온다. 두 시대를 살아가는 세 인물이 사랑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개인의 삶과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배수빈과 오종혁 등 배우들의 조합이 더욱 매력적이다.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Description 유형

Please describe the picture below.



In this picture, a man is giving a presentation to a group. They are in a conference room. Perhaps they are at a conference. The man is speaking and making gestures as he explains things to the audience. He is wearing a white shirt and a black suit. There is a white board next to him with information on it. A woman with blond hair is smiling. I think the presenter is well-prepared for this conference.

Opinion Question 유형

If you are given a new project from your company, please tell me how you plan to work on the project.

The first step when taking on a new project is to gather all related information. Then I can look at the time schedule and identify tasks due to target dates. I will also gather more information by interviewing certain personnel such as the overseas branch office manager or technical leader of the project. Also, a competitive analysis will be done to see wha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our competitors are. The final report for our CEO will be derived in a cost-benefit analysis format so that the decision makers can easily see the capital requirements and profit generated by taking on the project.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봄날에 가장 잘 어울리는 화가를 꼽는다면 르누아르가 단연 으뜸이다. 온화한 색감과 부드러운 화풍,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많이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생기를 가득 머금은 <르누아르의 여인> 전시작품을 통해 눈앞으로 성큼 찾아온 봄을 만끽해 보자. 사진=르누아르 전시본부

HYUNDAIE&CTODAY
http://news.hdec.kr
Vol.330
2017/03/10/Friday



©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DC, USA / Bridgeman Images

Renoir

Images of Women

르누아르의 여인展

~2017.3.26 sun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서울시립미술관은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 및 경향신문 창간 70주년을 기념해 <르누아르의 여인>展을 선보인다. 인상주의 회화를 빛낸 르누아르의 작품 중 여성을 주제로 한 작품만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번 전시에는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갤러리를 비롯해 프랑스 오랑주리미술관·피카소미술관,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 이스라엘 텔아비브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의 소장품과 르누아르의 화상이었던 뒤랑-뤼엘의 후손들이 소장한 개인 소장 작품들이 포함돼 있다.

“그림은 즐겁고 유쾌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는 예술철학을 바탕으로 화려한 빛과 색채의 조화를 보여준 르누아르는 2000여 점의 여성 인물화를 남겼다. 이는 르누아르가 남긴 5000여 점의 작품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성이 그의 작품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르누아르는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의 여성을 이상적이며 감상적으로 그려내 여성 인물화에 대한 독보적 표현 양식을 만들었다. 작품이 발산하는 안정적인 치유의 에너지를 느끼고 나면 르누아르가 전하고자 한 ‘그림을 통해 만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Archives Durand-Ruel/Durand-Ruel & Cie

1 고양이를 안고 있는 여인, c. 1875, 56×46.4cm, 캔버스에 유화, 워싱턴 내셔널갤러리, 미국. 2 해변가의 소녀들, 1894, 55×46cm, 캔버스에 유화, 개인소장, 파리. 3 루시 베라르의 초상, 하얀 덧옷을 입은 소녀, 1884, 35.2×27.1cm, 캔버스에 유화, 페레스 시몬 컬렉션, 멕시코. 4 장미꽃을 꺾은 금발여인, c. 1915-17, 64×54cm, 캔버스에 유화, 오랑주리미술관, 파리. 5 두 소녀, 모자 장식하기, 1893, 65×54cm, 캔버스에 유화, 뷔를레 컬렉션, 스위스.



© Colección Pérez-Simón, Mexico / Arturo Peña



© Musée de l'Orangerie, Paris, France / Bridgeman Images



© Collection Stiftung Sammlung E.G. Bührle, Zürich